

# 2018 KEDI BRIEF 01호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일 | 2018. 08. 01

발행인 | 반상진

www.kedi.re.kr

## 중학생의 균형 있는 교육성과 향상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분석연구실장 남궁지영

### 요약

- **현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점인 중학교 시기에는 학생들이 발달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함. 이 시기 학생들의 교육성과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균형 있는 교육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문제진단** 중학생들의 교육성과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모두 평균보다 높은 우수집단, 평균 수준인 양호집단, 평균보다 낮은 부진집단으로 분류되며, 초5부터 중2까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됨.
- **정책제언** 초기 진입부터 뒤처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 제도 확대, 학생의 교육성과 부진 및 누적적 교육 결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초한 학교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1. 들어가는 말

「한국교육종단연구2013」<sup>1)</sup>의 조사 참여 학생들은 2013년 초등학교 5학년에서 2016년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함.

-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 및 혼란과 갈등 경험
- 발달단계상 본격적인 청소년기로 접어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교육성과<sup>2)</sup>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 필요. 특히, 주요 교육격차 유발 요인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집중 분석 필요

1)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은 201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28세까지 추적 조사하며,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성취와 발달, 상위 학교급 진학과 학교생활, 진로 및 초기 직업 획득 과정 등을 조사하는 연구임.

2) 본 자료는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학교생활 행복',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인성'을 교육 성과로 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성과 발현 양상을 유형화하고, 발현 유형별 교육 성과 변화 추이 비교 분석 및 유형 간 차이 유발 요인 탐색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과 교육성과 향상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연구방법

- **분석 자료** 「한국교육중단연구2013」의 1~4차년도(초5~중2 시기, 2013~2016년 자료수집) 학생 중단 데이터 활용
- **분석 방법**
  - 교육성과별 분석** 초5부터 중2까지의 종단적 교육성과 변화 추이 분석 및 이중차분법,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한 교육성과 영향 요인 분석
  - 교육성과 종합분석** 중2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성과 발현 양상 유형화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 실시, 분류된 잠재계층별 교육성과 변화 추이(초5~중2)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 패널회귀분석 실시, 잠재계층 유형 간 차이 유발 요인 탐색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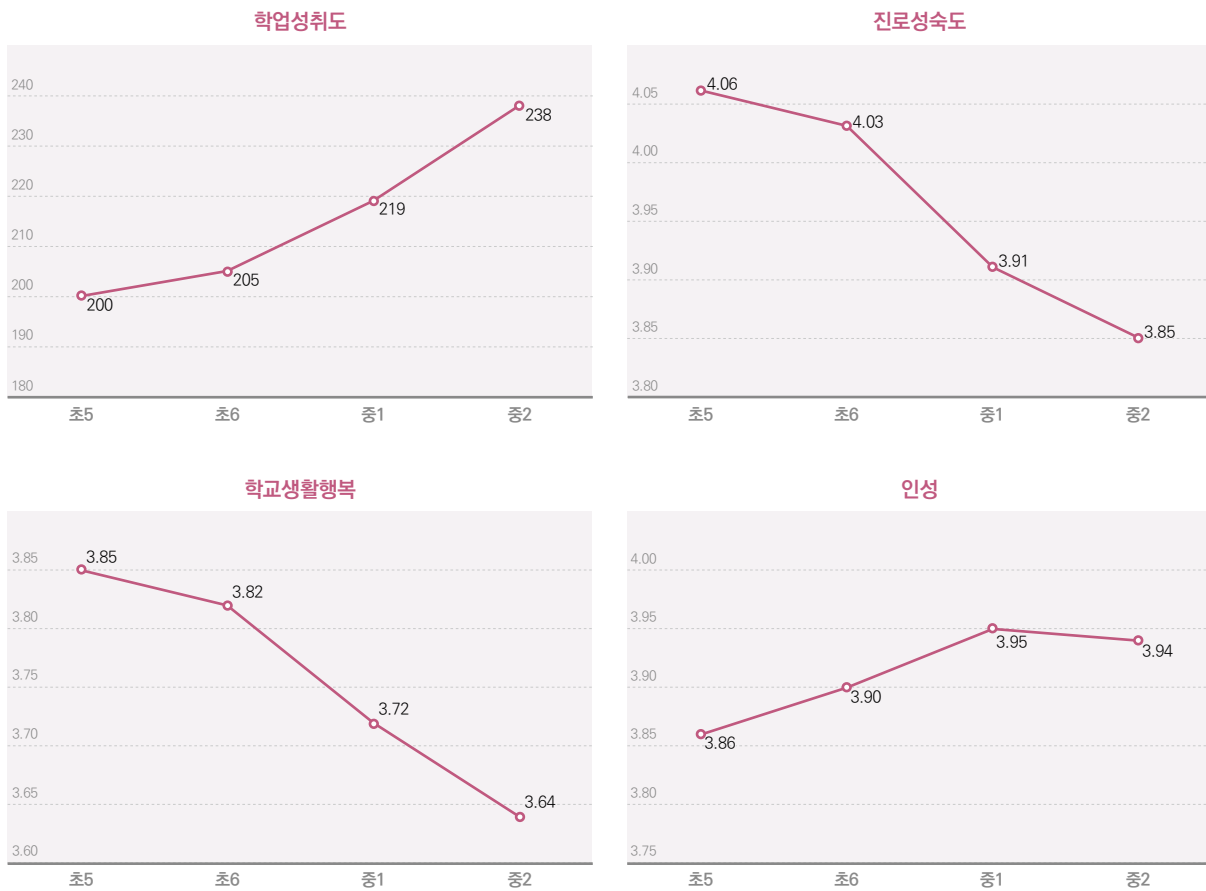


## 2. 중학생의 교육성과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

### 중학생의 교육성과별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 분석

- 초5부터 중2까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인성 수준은 높아지고,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행복감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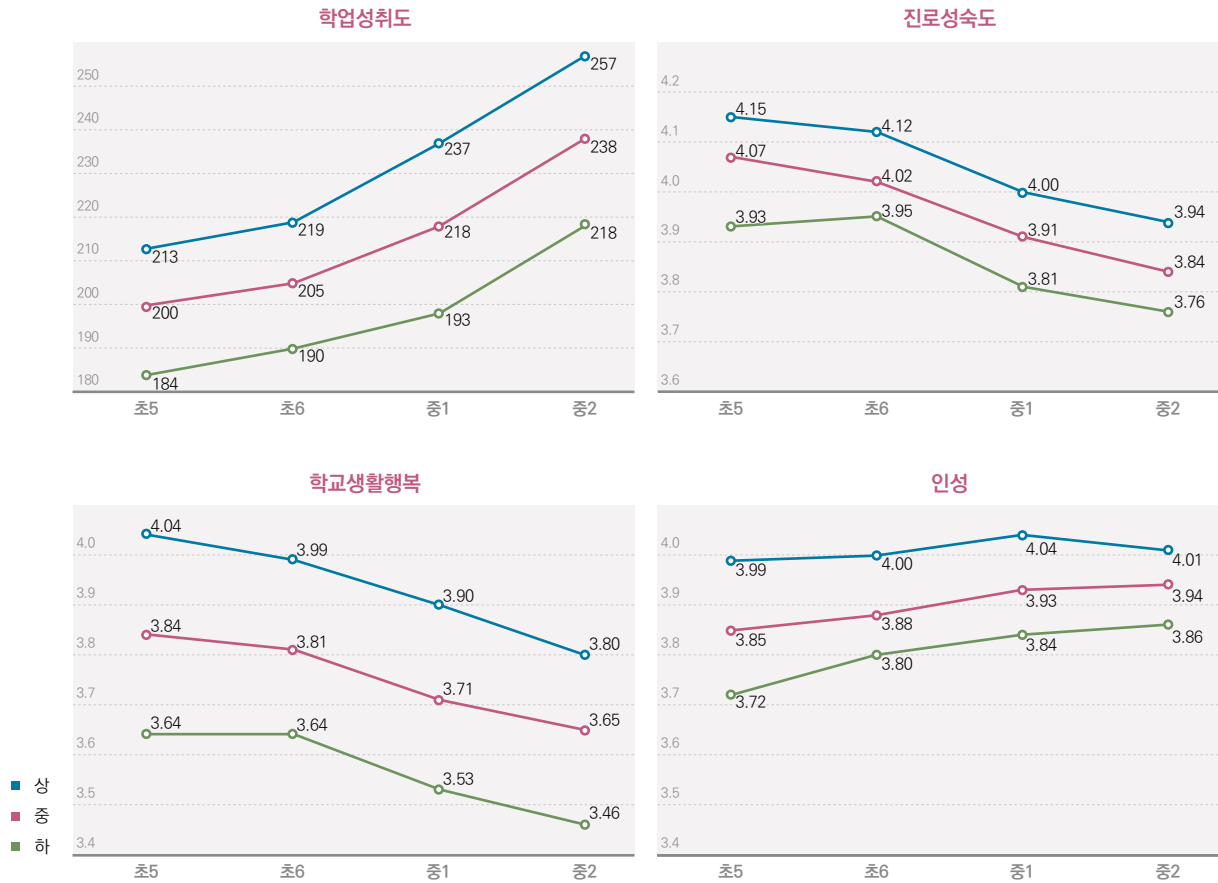
[그림 1] 학년 변화에 따른 교육성과 변화 추이<sup>3)</sup>



3) 학업성취도(국·영·수)는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이론적인 능력 모수치가 평균 200점, 표준편차 40점이 되도록 변환한 수직 척도 점수로서, 학년 변화에 따른 학업성취 성장 정보를 제공함. 진로성숙도(자기이해, 진로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학교생활 행복, 인성(규칙준수, 봉사활동인식, 공동체의식, 다문화 수용성)은 5점 척도로 구성된 측정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산출된 점수임.

- 초5부터 중2까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 커짐(영어:  $\beta = 1.95$ , 수학:  $\beta = 2.18$ ;  $p < .001$ ).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행복은 SES의 영향력이 미미하나, 인성의 경우는 학년이 낮을수록 SES에 따른 인성의 격차가 더 커짐( $\beta = -.026$ ,  $p < .001$ ).

[그림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학년 변화에 따른 교육성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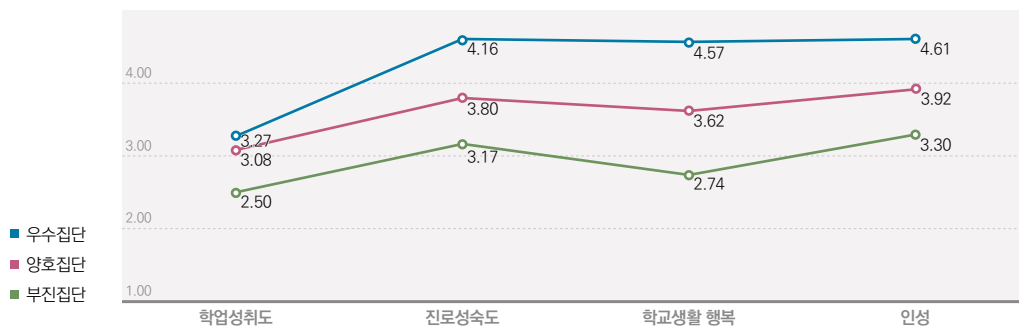
- 학교폭력 경험은 학교생활 행복 및 인성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개별화 또는 상호작용 방식의 수업 운영은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행복, 인성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무엇보다도 개별화 및 상호작용 수업은 인성 변화에 대한 SES의 영향력을 감소시킴.



### 중학생의 교육성과 수준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 요인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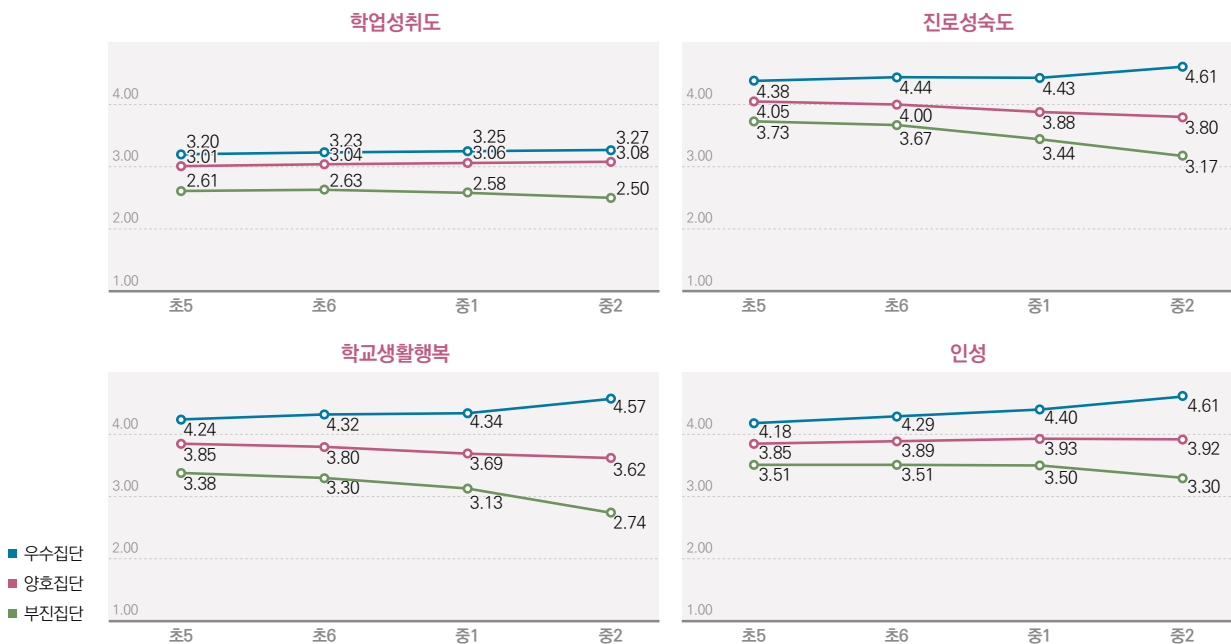
-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행복, 인성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우수집단(23.3%), 평균 수준인 양호집단(55.0%), 평균보다 낮은 부진집단(21.6%)으로 분류됨.
- 우수집단과 양호집단 간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제외하면, 세 집단간 교육성과의 차이는 뚜렷하게 상·중·하로 구분됨.

[그림 3] 교육성과 수준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sup>4)</sup>



- 초5부터 중2까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집단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부진집단은 점점 더 낮은 성과를 내어 잠재계층 간 교육격차는 점차 확대됨.

[그림 4] 잠재계층별 학년 변화에 따른 교육성과 변화 추이



4) 학업성취도(국·영·수)는 수직척도 점수를 평균 3, 표준편차 1인 표준점수로 변환한 후, 세 과목의 평균으로 산출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인 경우 부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음. 그리고 남학생일수록,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 낮고, 신체·가족·사회 자아개념이 낮으며, 자기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학업 무기력과 휴대전화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부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 학교 교육활동의 부진함 역시 학생들이 부진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는데, 교사들의 성취압력과 열의가 낮고, 교사 및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협력적 학습태도 수준이 낮고 수업집중도가 낮을수록, 학생회 및 학급 자치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교육성과 수준이 낮은 부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우수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은 부진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과 정확히 정반대의 경향을 보임.

### 3. 정책적 시사점

#### 초기 진입부터 뒤쳐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 제도 확대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의 소재지와 같은 고정된 가정 및 학교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부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뒤쳐진 학생들이 있음을 말해줌.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부진집단에 속할 확률은 가정과 학교의 고정된 특성 이외에도 학생의 성별, 교육포부수준, 신체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자기관리 수준, 학업 무기력, 휴대전화 중독 등의 학생 개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상당함. 물론 이러한 학생 개인특성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맞벌이 여부, 거주지역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미 낮아진 신체·사회·가족 자아개념을 높이고, 교육포부 수준을 높이며, 휴대전화 중독을 해소하고, 학업무기력을 치유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함.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 문화체험, 정서적 지원, 복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교육적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전체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회·경제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교육성고가 낮아 부진집단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교육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학생의 교육성과 부진 및 누적적 교육 결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성과가 부진한 학생들은 점점 더 낮은 성과를 내어, 이들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교육성과 부진이 적절히 제때에 보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육적 결손이 누적되고 있음을 말해줌.
- 현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심리상담, 학습치료 등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업적 결손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성과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행복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체계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학교 안팎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초한 학교교육 재구조화

- 우수집단에 속할 확률은 교사의 성취압력 및 열의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협력적 학습태도 점수가 높고, 수업 집중을 잘하고,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높아짐. 이 중에서도 특히 협력적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들이 우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협력적 학습태도가 오히려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점은 우리 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초하여 재구조화 되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교육의 성과가 인지적 측면에서의 발달, 즉 학업성취도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학습태도의 중요성이 재확인 되어야 함. 협력적 학습태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킴으로써 또래가 관계의 중심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학생들에게 협력적 학습태도를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 교육과정 속에 협력적 학습이 훈련되고 체화될 수 있는 기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